

## 芳台山 北斜面 一帶의 兩棲·爬蟲類相

백남극·우한정\*·구태회\*\*·심재한\*\*\*

강릉대학교 생물학과·\*한국자연보존협회·\*\*경희대학교  
환경보호학과·\*\*\*임업연구원

## On the Amphibia and Reptilia Fauna of the Northern Slope Area of Mt. Pangtae

by

Paik, Nam-Keuk, Han-Chung Woo\*, Tae-Hoe Koo\*\* and Jae-Han Shim\*\*\*

Dept. of Biology Kangnung Nat'l Univers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Dept. of Environment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Forestry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detail results obtained in this surveys are as follows:

1. During censuses Amphibians specimen collected and observed in Mt. Pangtae area were classified 2 Order, 5 Families, 9 Species and Reptilians were 1 Suborder, 4 Families and 10 Species and Subspecies.
2. Caudata of Amphibia, *Onychodactylus fisheri* and *Bufo stejnegeri* were high population size. Because of highland and low water temperature *Hyla japonica* and *Rana rugosa* were fewer. Among Reptilia, population size of *Takydromus amurensis*, *Agkistrodon usseriensis* and *Agkistrodon saxatilis* were higher than other region. And the line of endangered species of *Elaphe schrenckii* was habitated in this area. Meanwhile rare species of *Scincella laterale laterale* and *Amphiesma vibakari ruthveni* were collected but *Zamenis spinalis* was not investigation.
3. Specified wildlife species were *Hynobius leechii*, *Onychodactylus fisheri*, *Rana dybowskii*, *Bufo bufo gargarizans*, *Bufo stejnegeri*, *Elaphe schrenckii*, *Elaphe rufodorsata*,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Scincella laterale laterale*, *Amphiesma vibakari ruthveni*, *Agkirstodon brevicaudus* and *Agkistrodon saxatilis*.

## 緒 論

방태산의 행정구역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면, 홍천군 남면 그리고 양양군 서면과 경계를 이루고 태백산맥의 서쪽 지맥으로 지리적 좌표는 북위 37° 50' ~ 37° 57', 동경 128° 15' ~ 128° 30' 사이에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다. 방태산주억봉을(1,443m)을 주봉으로 구룡덕봉(1,388m), 갈천곡봉(1,204m) 등의 고봉과 함께 대골, 젓가리계곡, 가리왕생골, 골뱅이골, 가리막골 등의 수많은 계곡으로 형성되었으며 또한 산간 奧地로 교통이 불편한 이유로 사람들의 출입이 한적하여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실정이다. 방태산 일대의 고지대에는 신갈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계곡에는 잡목이 형성되어 양서, 파충류가 서식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산성 양서, 파충류의 개체군이 큰 편이다. 방태산 일대의 양서, 파충류에 관한 학술적인 보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나 인접지역인 설악산(백.심, 1984), 계방산(백.등, 1994), 점봉산(백.심, 1983; 백.최, 1993)의 조사 보고서가 있다. 본 조사는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14일 부터 8월 19일까지 방태산 일대에서 양서류 2목 6과 9종과 파충류 2아목 4과 11종이 채집 및 관찰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調查地域 및 方法

### 1) 조사 지역

1. 1995년 8월 14일 : 기린면 방동약수 계곡일대
2. 1995년 8월 15일 : 대골 → 방태산정상 → 젓가리계곡 → 대골
3. 1995년 8월 16일 : 대골계곡일대
4. 1995년 8월 17일 : 가리왕생골 → 분지(왕생) → 능선일대
5. 1995년 8월 18일 : 조경리 일대

### 2) 조사 방법

양서류중 有尾目的 도롱뇽은 저지대와 등산로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아 유생과 알 껍질을 관찰하였고 꼬리치레도롱뇽은 계류에서 유수가 완만한 곳에서 돌을 들추어 유생을 채집하고 성체는 고지대의 활엽수림이 있는 음지쪽에 고목이 쓰러져 있는 곳을 들추거나 바위틈에서 채집하였다. 파충류 중에서 장지뱀류는 목정발 주변, 도로변과 등산로 주변에서 돌을 들추어 채집하였고 蛇類는 저지대의 임연부일대, 목정발, 등산로 주변에서 뱀집계를 이용하여 생포하였다. 또한 양서류는 야간에 울음소리로 종을 식별하여 산란 장소 및 특징을 관찰하였다. 본 조사 기간 중에 채집 및 관찰이 불가능하였던 종들에 대해서는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기린건강원과 유복건강원에서 방태산 일대에서 수집된 사료에 관하여 청문 및 직접 확인을 하여 기록하였다.

## 調查結果 및 考察

### 1) 結果

본 조사기간 중 방태산일대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2목 5과 9종이었고, 파충류는 2아목 4과 11종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List of the Amphibia and Reptilia from Mt. Pangtae

Class 1. Amphibia(兩棲綱)

Order 1. Caudata(有尾目)

Family 1. Hynobidae(도롱뇽과)

1. *Hynobius leechii* (Boulenger) 도롱뇽
2. *Onychodactylus fisheri* (Boulenger) 꼬리치레도롱뇽

Order 2. Salientia(無尾目)

Family 2. Discoglossidae(무당개구리과)

3.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무당개구리

Family 3. Hylidae(청개구리과)

4. *Hyla japonica* Gunther 청개구리

Family 4. Bufonidae(두꺼비과)

5. *Bufo bufo gargarizans* Cantor 두꺼비
6. *Bufo stejnegeri* Schmidt 물두꺼비

Family 5. Ranidae(개구리과)

7.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참개구리
8. *Rana dybowskii* Gunther 산개구리
9. *Rana rugosa* Temminck & Schlegel 움개구리

Class 1. Reptilia(爬蟲綱)

Order 1. Squamata(有鱗目)

Suborder 1. Lacertilia(도마뱀亞目)

Family 1. Scincidae(도마뱀과)

1. *Scincella laterale laterale* Say 도마뱀

Family 2. Lacertilidae(장지뱀과)

2. *Takydromus amurensis* Peter 아무르장지뱀

Suborder 2. Serpentes(뱀亞目)

Family 3. Colubridae(뱀과)

3. *Elaphe dione* (Pallas) 누룩뱀
4. *Elaphe rufodorsata* (Cantor) 무자치
5.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Cantor) 능구렁이
6. *Elaphe schrenckii* Strauch 구렁이
7. *Rhabdophis tigrinus tigrinus* (Boie) 유헤목이
8. *Amphiesma vibakari ruthveni* (VanDenburgh) 대륙유헤목이

Family 4. Viperidae(살모사과)

9. *Agkistrodon brevicaudus* Stejneger 살모사
10. *Agkistrodon ussuriensis* (Emelianov) 쇠살모사
11. *Agkistrodon saxatilis* Emelianov 까치살모사

2) 考 察

방태산 일대는 주역봉(1,443m)을 주봉으로 구룡덕봉(1,388m), 갈천곡봉(1,204m)등의 고봉이 있으며 이들 계곡들은 대골, 가리왕생골, 골뱅이골, 가리막골, 젓가리계곡 등 수 많은 험준한 계곡으로 형성되었으며 식생은 신갈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간혹 젓나무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태산은 군사도로가 郡도로로 이관되면서 도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옆 수로가 파괴되어 일반 승용차는 통행을 할 수 없어 주변 계곡들이 깨끗하고 또한 인가가 없어 인간의 간섭이 적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 되어 있다.

또한 방동리 계곡은 대골까지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그 윗쪽은 등산로 뿐이고 인적이 드물어 길을 찾기가 어렵다. 도로 주변에는 풀들이 무성하고 낙석들이 많아 양서, 파충류가 서식하기에는 좋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등산로가 없는 관계로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땅균들의 출입이 적어 타지역에 비하여 개체군이 큰것이 특징이다. 양서류의 유미목(Caudata)의 도롱뇽(*Hynobius leechii*)은 방동리와 조경동 계곡의 도로 주변에서 그리고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heri*)은 고여있는 물에서 유생이 관찰 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 무미목(Salientia)은 산개구리가 우점종이며 여름철에 성체를 관찰하기는 힘들고 봄철 산란기에 집단으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물속바위 밑에 동면하기 때문에 도시 가까운 곳에서는 식용으로 남획되어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곳은 겨울철에도 산개구리를 잡는 사람이 없어 다수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는 전 지역에서 다수가 관찰되었으며 낮에는 바위 밑에서 은신하고 있었다. 물두꺼비(*Bufo stejnegeri*)는 진동리계곡(백 등, 1993)에서와 같이 성체를 계류에서 물속 바위를 들추어 채집하였고 조경동 계곡에서는 도로에 기어 다니는 2년생 물두꺼비를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는 저지대의 초원에서 관찰되었고, 움개구리(*Rana rugosa*)는 저지대 물가 주변에서 확인 하였다. 파충류는 과거에 화전민이 거주하던 곳이 많고 험준한 山勢로 인하여 땅균들의 출입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하여 서식밀도가 높다. 특히 중부지방의 북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점봉산, 설악산에서 채집이 되지 않았던 도마뱀(*Scincella laterale laterale*)이 채집 되었다(Table 1). 아무르장지뱀(*Takydromus amurensis*)은 도로 주변에서 다수가 관찰되었고 조경동 국민학교 분교 건물 주변에서 14개체를 확인 하였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멸종상태에 있는 구렁이(*Elaphe schrenckii*)가 이 지역에서는 남아 있어 5월경에는 수십 마리가 수집된다고 한다(기린면.가린건강원 중언). 본 조사에서는 조경동 사재봉씨 집에 구렁이 알 19개를 보관하고 있어 촬영 후 4개를 얻어 표본을 만들었다. 방태산의 뱀류는 쇠살모사(*Agkistrodon ussuriensis*)가 우점종이고 다음으로 누룩뱀(*Elaphe dione*), 까치살모사(*Agkistrodon saxatilis*)가 우세하였고 능구렁이(*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와 구렁이(*Elaphe schrenckii*)는 희소 하였다. 유복건강원 주인에 의하면 방태산에서 실뱀(*Zamenis spinalis*)과 대륙유혈목이(*Amphiesma vibakari ruthveni*)를 간혹 생포하여 오는데 이 종류는 상품가치가 없어 구매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는 실뱀(*Zamenis spinalis*)은 확인 하지 못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Amphibian and Reptilia list at Mt. Sorak, Mt. Gyeong, Jindong valley and Mt. Pangtae area in Kangwon-do.

Species	A	B	C	D	Remark
I. Amphibia					
<i>Hynobius leechii</i>	●	●	●	●	①②
<i>Onychodactylus fisheri</i>	●	●	●	●	②③
<i>Bombina orientalis</i>	●	●	●	●	③
<i>Bufo bufo gargarizans</i>	●	●		●	①③
<i>Bufo stejnegeri</i>	●	●	●	●	①
<i>Hyla japonica</i>	●	●	●	●	③
<i>Rana dybowskii</i>	●	●	●	●	①③
<i>Rana nigromaculata</i>	●	●	●	●	③
<i>Rana rugosa</i>	●	●	●	●	③
<i>Rana amurensis coreana</i>	●				①②
II. Reptilia					

<i>Scincella laterale laterale</i>		●		●	②④
<i>Takydromus amurensis</i>	●	●	●	●	③
<i>Takydromus wolteri</i>	●				②③
<i>Takydromus auralis</i>	●				①
<i>Elaphe schrenckii</i>	●			●	①③
<i>Elaphe dione</i>	●	●	●	●	③
<i>Elaphe rufodorsata</i>	●			●	②③
<i>Rhabdophis tigrinus tigrinus</i>	●	●	●	●	③
<i>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i>	●	●	●	●	①④
<i>Amphiesma vibakari ruthveni</i>	●			●	①③
<i>Agkistrodon brevicaudus</i>	●	●	●	●	①③
<i>Agkistrodon ussuriensis</i>	●	●	●	●	③
<i>Agkistrodon saxatilis</i>	●	●	●	●	①③
<i>Zamenis spinalis</i>	●				②④

\* ①: Endemic species ②: Specified wildlife species

③: Palearctic species ④: Oriental species

\* A: Mt. Sorak B: Mt. Gyeongang C: Jingdong valley D: Mt. Pangtae

## 종류별 서식현황

### 1. 양서류의 종류별 현황

#### 1) 도롱뇽(*Hynobius leechii*)

도롱뇽(*Hynobius leechii*)은 4 - 5월초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산재되어 있는 논이나 샘물이 솟아나는 계곡의 웅덩이에 산란을 한다. 산란후 3-4주일 이내에 부화되며 부화 직후의 새끼는 10-15mm에 달한다. 낮에는 바위 밑이나 쓰러진 古死木 밑에 은신하고 있다가 밤이되면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白, 1987). 또한 藥用으로 산란기에 웅덩이로 모여든 성체를 포획하여 먹고 있으며 논에는 무분별한 농약의 살포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도로 주변 수로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유생을 확인 하였다.

#### 2)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heri*)

꼬리치레도롱뇽(*Onychodactylus fisheri*)은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만주, 러시아에 분포하고 알을 계류의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에 산란 孵化하며 孵化된 幼生은 수량이 적은 水流나 물살이 세지 않은 물가의 낙엽밑이나 자갈 밑에서 水棲昆蟲을 먹고 생활한다. 본 조사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적어 수질오염이 되지 않아 수온이 낮아(수온 13℃, 기온 29℃) 각 계곡에서 유생을 관찰하였다.

#### 3)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

무당개구리(*Bombina orientalis*)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이며 한국, 만주, 중국북부, 우수리지방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저지대에서 고지대의 계류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는 無尾目 가운데 이 종이 우점종이다. 태백산맥일대에서는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남서부 지방에서는 고지대의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전 지역의 습한 곳의 바위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4) 두꺼비(*Bufo bufo gargarizans*)

두꺼비(*Bufo bufo gargarizans*)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중국북부, 몽고, 소련에 분포하고 있다. 5월에 산란기가 시작되며 연못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집단을 이루어 산란을 하고 산란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기린면 방동 2리 진영농장의 별통에서 1개체를 생포하였다.

5) 물두꺼비(*Bufo stejnegeri*)

물두꺼비(*Bufo stejnegeri*)는 한국 특산종으로 오대산, 설악산, 강릉 남대천, 소금강, 고성 건봉산, 양구 대암산, 춘천, 소백산 등지에서 채집되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서식 밀도가 높아 방동약수 계곡에서는 수온 13°C 되는 물속의 큰 바위에서 4개체를 생포하였고 조경동 가리왕생굴 도로(4Km거리)에서 2년생 12마리를 관찰하였다.

6) 청개구리(*Hyla japonica*)

청개구리(*Hyla japonica*)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 만주, 중국북부, 연해주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서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청개구리(*Hyla japonica*)는 古死木이 부식된 곳에서 동면을 하고 일반적으로 5월경 모내기 이후 눈으로 모여들어 산란하는데 알은 진한 황갈색이며 식물극은 약간 연한 색이다. 알은 불규칙하고 1-10개의 알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진영농장 뒤에 논두렁에서 유생 5개체를 채집 하였다. 각 계곡의 활엽수림에서 청개구리의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7)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번식기가 되면 많은 개체가 논 같이 고인 얇은 물에 모여 암, 수가 포집한 채로 지름 20cm 되는 커다란 알덩어리를 산란한다. 알덩어리는 접착성이 없으며 다른 물체에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 잠겨있으면서 부화한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無尾類 중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농약의 사용으로 점차 그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는 종이다.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진영농장 뒷편에 논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는 논이 없어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도로주변에서 계곡물이 흘러 습지를 형성한 곳에서 채집 되었다.

8) 산개구리(*Rana dybowskii*)

산개구리(*Rana dybowskii*)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북해도), 만주, 연해주에 분포하고 강원도에서는 전지역의 하천과 계류에서 산란기때에는 무당개구리와 같이 흔히 볼 수 있으나 서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는 하천에서는 볼 수 없고 큰 산의 계류에서만 볼 수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도로 여건도 열악하고 출입이 드물고 이곳까지 와서 포획하는 사람이 없어 봄철에 산란기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김진희 증언). 산개구리는 여름철에는 물속 바위 밑이나 육지의 큰 바위 밑에 은신하고 있다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대골계곡에서 2개체와 조경동계곡에서 4개체를 채집하였다.

9) 움개구리(*Rana rugosa*)

움개구리(*Rana rugosa*)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 만주, 중국에 분포하고 주로 평지나 얇은 산지에 서식한다. 산개구리(*Rana dybowskii*)와 같이 물속 바위 밑에서 동면하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다(백·우, 1986). 알덩어리는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30-60개의 알을 연못이나 고인 물의 수초에의 등에 부착시킨다. 올챙이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을 하여 다음 해 여름에 변태를

한다(姜·尹, 1975).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리 하천에서 돌을 들추어 2개체를 생포하였다.

## 2. 파충류의 종류별 현황

### 1) 도마뱀(*Scincella laterale laterale*)

한국에서는 제주도(백 등, 1985), 두타산(백 등, 1993), 정선 대성산(백, 1990), 계방산(백 등, 1994), 발왕산(백·심, 1992) 등지에서는 집단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으나 타지역에서는 희소하며 본 조사지역과는 인근인 점봉산 그리고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는 아직 채집 기록이 없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리에서 1개체를 채집하였다.

### 2) 아무르장지뱀(*Takydromus amurensis*)

아무르장지뱀은 韓國, 日本, 中國 및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국의 발이나 野山의 登山路 부근에서 가장 흔히 발견 할 수 있었으나 近年에 이르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의 조경동 계곡의 도로는 군사도로로 사용되었다가 郡도로로 이전 되면서 계곡에 다리가 끊어져 사륜구동 차량외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도로주변에는 낙석이 곳곳에 산재되어 도로주변에는 일광욕을 하기 위하여 나온 아무르장지뱀이 관찰되었다. 특히 방동 2 리 국민학교분교 주변에는 아무르장지뱀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校舍와 축대사이가 비어 있는 곳에 아무르장지뱀이 안쪽벽에 붙어 꼬리를 느려 뜨리고 있는것을 관찰하였으며 방안에도 침입하고 있었다.

### 3) 구렁이(*Elaphe schrenckii*)

方言 : 진대, 흑질백질, 황구렁이, 먹구렁이, 흑지리

구렁이(*Elaphe schrenckii*)는 남한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중에서 가장 크고 서식지가 주로 인가 부근이기때문에 남획으로 인하여 매년 그 수가 격감하고 있는 종이다. 또한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중국북부, 러시아(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고 구렁이는 약용으로 남획되고 있어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으로 현재는 비무장지역, 남해안의 금오도 일대(백·심, 1994)에서 수집되고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기린면의 기린건강원과 유북건강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방태산은 오지로 사람의 출입이 적고 옛 화전터가 많아 타지역에 비하여 구렁이가 많다고 한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기린면 방동 2리 조경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재봉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구렁이 알 19개 중 4개를 얻어 표본을 만들었다.

### 4) 누룩뱀(*Elaphe dione*)

方言 : 밀구렁이, 밀뱀, 금화사, 산구렁이, 시루레기, 누루레기

누룩뱀(*Elaphe dione*)은 한국, 만주, 중국, 러시아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와 같이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우점종이다. 누룩뱀(*Elaphe dione*)은 구렁이(*Elaphe schrenckii*)나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아도 타당하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리 약수터 계곡의 발독에서 1개체와 조경동 도로주변 돌담에서 1개체를 관찰하였다.

### 5) 무자치(*Elaphe rufodorsata*)

方言 : 수사, 무자수, 무재주, 물뱀

무자치(*Elaphe rufodorsata*)는 구북구계에 속하며 한국, 중국북부,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해안의 도서지방과 육지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 방동리 진영농장 위 논둑에서 1개체를 포획하였다.

### 6) 능구렁이(*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

方言 : 능사, 능그리

능구렁이(*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는 동양구계종으로 한국에서는鬱陵島와 濟州道를 제외한(백 등, 1985) 남해와 서해의 島嶼地域과 본토의 논이 있는 지역과 저지대의 바위가 많은 곳에 주간에는 바위 밑에 隱身해 있다가 야간에는 도로 부근에서 徘徊하면서 개구리, 들쥐 새알 등을 飽食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근년에 와서 능구렁이는 농사酒 뿐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쓰이고 있어 구렁이(*Elaphe schrenckii*)와 같이 그 개체수가 격감하고 있는 종이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 2 리에서 1 개체를 확인 하였다.

7) 유희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

方言 : 화사, 꽃뱀, 늘메기, 너불대, 너불메기, 까치독사

유희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일본, 중국북부,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우점종이다. 한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평지나 낮은 산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논이나 연못근처에서 개구리를 포식하며 서식하고 있으며(백 심, 1986), 개체수도 많아 특별히 보호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용으로 남획되고 있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논이 없고 평지의 초원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하여 서식 밀도가 낮은 편이다. 방동리 강변에서 1개체를 목격하였다.

8) 대륙유희목이(*Amphiesma vibakari ruthveni*)

方言 : 달구렁이, 밀뱀

대륙유희목이(*Amphiesma vibakari ruthveni*)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만주, 연해주에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에 분포하고 추자도, 제주도에는 인가부근의 초원에서 한라산의 1,000m까지의 풀밭에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희소하여지는 경향이 있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조경동 국민학교 분교의 밭에서 1 개체를 채집 하였다.

9)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

方言 : 부에기, 까치독사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는 구북구계에 속하며 韓國, 中國에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濟州道를 제외한(백 등, 1985) 전 지역의 高山보다는 산과 연결되어 있는 발독이나 산 입구의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바위 근처에서 들쥐와 개구리, 장지뱀類를 飽食하고 있다. 9월초에 6-12 마리(卵胎生)의 새끼를 낳고 외부 기온이 평균 10°C로 내려가는 10월이 되면 햇빛이 잘드는 양지쪽의 굴을 찾아 동면에 들어간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 2리 1반 저지대의 발독에서 1개체를 포획하였다.

10) 쇠살모사(*Agkistrodon ussuriensis*)

方言 : 독사, 부독사, 불독사

쇠살모사(*Agkistrodon ussuriensis*)는 전국에 걸쳐 低地帶에서 高地帶까지 계곡의 평지와 잡목림과 바위가 있는곳에서 들쥐, 산개구리 등을 飽食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본 조사지역에서는 풀이 무성한 밭에서 채집되었으며, 본 조사지역에서는 살모사속 3종 중 개체군이 가장 크다.

11) 까치살모사(*Agkistrodon saxatilis*)

방언 : 칠점사

까치살모사(*Agkistrodon saxatilis*)는 구북구계에 속하는 종으로 한국, 중국북부에 분포하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안면도, 제주도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방동계곡과 조경동계곡에서 각각 1 개체씩 포획하였다.



## 要 約

1. 방태산 일대는 양서류·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보존되어 있어 개체 밀도가 높다. 본 조사지역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2목 5과 9종이고 파충류는 2아목 4과 11종 및 아종이다.
2. 양서류 중에서 서식밀도가 높은 종은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이고 고산지대로 수온이 낮아 청개구리와 움개구리는 희소 하였다. 파충류 중에서 서식밀도가 높은 종은 아무르장지뱀, 쇠살모사, 까치살모사이고 타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구렁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륙유혈목이와 도마뱀도 채집 되었으나 실뱀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3. 특정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양서류에서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두꺼비, 물두꺼비, 산개구리 5종이었고, 파충류는 도마뱀, 대륙유혈목이, 구렁이, 무자치,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7종이 확인되었다.

## 參考文獻

- 강영선·윤일병, 1975. 한국동식물도감 제 17 권 동물편(양서류·파충류). 문교부
- 백남극, 1987. 민통선 北方 江原道 지역의 양서류, 파충류상. 민통선 북방지역자원 조사보고서(江原道) pp. 529-550.
- 백남극·김창한·심재한, 1985. 한라산의 양서류·파충류상. 한라산학술조사보고서(제주도) pp. 457-479.
- 백남극·최태현, 1991. 비무장지역 인접지역(강원도)의 양서류, 파충류. 환경부, pp.189-211.
- 백남극·최태현·김기천, 1993. 점봉산 진동리계곡일대의 양서류, 파충류. '92자연생태계 지역 정밀조사보고서(환경처) pp.89-95.
- 백남극·최태현·심재한, 1993. 두타산 청옥산의 양서류, 파충류. '92자연생태계 지역 정밀조사보고서(환경처) pp.75-83.
- 백남극·심재한, 1983. 점봉산 일대의 양서류, 파충류상. 한국자연보존협회조사보고서 22:121-124.
- 백남극·심재한, 1984. 설악산의 양서류, 파충류상.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강원도) pp.277-302.
- 백남극·심재한, 1993. 발왕산 일대의 양서류, 파충류상. 한국자연보존협회조사보고서 30:97-104.
- 백남극·심재한, 1994.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지구 양서류, 파충류.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32: 185-191.
- 백남극·우한정, 1986. 백운산 양서류, 파충류상.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24:113-121.
- 백남극·우한정, 1992.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양서류, 파충류상.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문화재 관리국) pp.261-275.
- 백남극·양서영, 1986. 韓國産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2亞種의 分類學的研究. 韓國動物分類學會誌 2(1):79-92.